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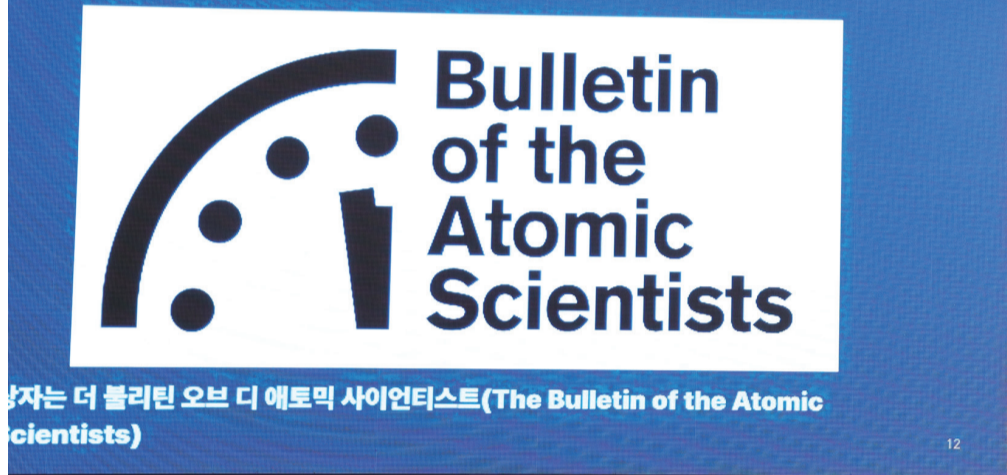
경기장에서의 환호 뒤에는 선수들의 혹독한 훈련,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신문은 체육부 선수들을 만나 종목을 향한 열정과 선수로서의 일상,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는다. 이번 신문에서는 야구부 외야수 오승빈(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를 만나봤다.



양캠 총학생회가 이미 취득한 교과목 성적을 일정 기준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학점포기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신문은 해당 제도에 관한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우리학교와 서울 주요 대학의 성적분포 및 학점포기제 운영 사례를 비교해봤다.

대학주보

2회 미원평화상 수상자



수상자는 더 볼리틴 오브 디 에토믹 사이언티스트(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제2회 미원평화상' 세계원자과학자 협회 수상

지난달 29일 우리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제2회 미원평화상' 수상자 발표식이 열렸다. 수상자로는 'The Bulletin of Atomic Scientists(세계원자과학자협회)'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9월 21일 세계평화의 날 기념행사와 동시에 평화의전당에서 진행된다. (사진=김정우 기자)

공대 분관 8월 첫 삽

김정우 기자 jwkim012506@khu.ac.kr

【국제】공과대학 앞에 들어설 약 1,166평 규모의 공학관 분관 신축 공사가 8월 중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지난해 5월 '공학관 분관 건립 추진 한마음 발대식'을 개최한 지 약 1년 여 만이다. 공사는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약 18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분관 신축 계획은 당초 교수 연구실 공간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로 시작됐으나, 설계를 맡은 김동일(건축학) 교수가 "새로 짓는 건물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제안하며 방향이 수정됐다. 김 교수는 "정문 전면부에 들어서는 건물에 교수 연구실보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육·공용 공간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1984년에 지어진 공과대학은 국제캠퍼스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천장고가 낮고 기둥 간격이 가까운 탓에 강의실은 좁고 긴 형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토론·발표·문제 기반 학습(PBL) 등 현재 공학 교육이 요구하는 수업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공과대학은 기존 강의실을 새로 신축되는 분관으로 대거 이전하고, 기존 공과대학 공간에는 교수 연구실과 실험실을 재배치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김 교수는 "지식 전달만이 목적이라면 온라인 교육으로도 가능하지만, 캠퍼스의 의미는 구성원들이 얼굴을 마주치며 생기는 일상성에 있다"며 강의실 밖의 교류와 경험까지 교육의 일부로 보고 건물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강민혁(사회기반시스템공학 2021) 씨는 "공과대학엔 편의점 말고는 제대로 된 휴식 공간이 없는 것이 아쉬웠다"며 "분관에 새롭게 생길 휴식 공간이 가장 기대된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

3면에 계속 →

수강신청 제도 개편, 내년 1학기로 연기 선착순제 보완하는 '혼합형' 채택

김재희 기자 jaylove0413@khu.ac.kr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수강신청 제도 개편 이유 기존 선착순 방식 보완

오는 2학기 시행 예정이었던 수강신청 제도 개편안이 내년 1학기로 연기됐다. 개편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신문은 제도 변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 배경과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마일리지 제도 도입'만이 아니다. 사전 수강신청 제도, 학년별 정원 확인, 마일리지 배분 방식이 함께 도입된다.

지난달 17일 개편안 공개 이후 학생들은 제도 이해 부족, 촉박한 시행 시점, 일부 학생의 불이익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양캠 총학생회는 "학생 의견을 반영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제도 시행 연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이번 개편이 갑작스럽게 추진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양캠 학사지원팀을 중심으로 수강신청 TF팀을 구성해

타 대학 사례를 검토했고, 1년 넘게 제도를 준비해오며 총학생회와도 논의를 이어왔다는 입장이다.

서울캠 학사지원팀 태운희 팀장은 "수강신청은 항상 불만이 많은 부분"이라며 "기존 선착순 방식은 클릭 속도와 인터넷 접속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강신청 기간에 해외에 있거나 접속 환경이 좋지 않은 학생은 불리할 수 있다"며 "모든 학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수강신청하기 어려운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마일리지 제도 아닌 혼합형 제도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 희망과목담기(희과담) 단계에 '사전 수강신청' 기능이 더해지는 점이다. 사전 수강신청은 희망 과목으로 담은 과목을 일정 범위 안에서 수강신청으로 확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학생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은 마일리지 제도의 적용 범위다. 이번 개편안은 수강신청 전체를 마일리지만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다.

3면에 계속 →